

【나의 책 나의 학문 2】

## 졸필로 못다 한 신비의 학문

---

金敏洙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1. 언어의 神秘 : 文法

대학에 입학한 이듬해 23세에 담차계도 “朝鮮語法에 對한 小考”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연구 발표를 감행했다. 이것은 1948년 4월 18일 토요일 하오 1~2시에 합동연구실에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조선어문학연구회 주최로 열린 제3회 연구발표회 제목이었다. 그 제1회는 李明九 동문의 “九雲夢攷”, 제2회는 金三不 동문의 “판소리 研究”였다고 기억되나 확실치 않다. 당시의 발표내용은 약 90장 분량이었으나 전쟁 통에 없어지고, 〈大學國語〉(1955), 유인 〈國語文法論〉(1955) 등에 다소 재현되었다.

1년 후 24세에는 “15 cent. ㅎ助詞 研究”라는 제목으로 제2 연구발표를 했다. 이것은 1949년 5월 31일 화요일 하오 1~2시에 淑明女子大學에서 개최된 全서울各大學朝鮮語文學研究懇談會의 제8회 월례회 발표였고, 그 내용은

1952년 〈國語國文學〉에 발표되었다. 전자에서 조사의 품사성을 부인한 것은 柳應浩 부교수 言語學概論 강의, 후자에서 중세어에 주목한 것은 方鍾鉉 교수의 유인본 〈古語材料辭典〉을 지남침으로 했던 國語學演習에서 〈松江歌辭〉의 형태 분석을 시도한 영향으로 짐작되고 있다.

1953년 3월 28세에 지반이 안정되는 대학 전임강사가 되면서 계속 논문을 썼고, 축적된 이 방면의 논문은 1960년 11월에 〈國語文法論 研究〉라는 큰 책으로 묶어서 출판했다. 이것은 거의 지형에 의한 활판으로 보기에 좋은 판이었다. 당시 고려대학교 趙容萬 출판부장에게서 지형을 빌리고 지형과 함께 책을 드렸는데, 예상했던 칭찬보다 오히려 책망이 돌아왔다. 이런 책을 낼 작정이었더라면, 우리 출판부에서 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하며,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나무란 것이었다.

특히 ㅎ조사는 梁柱東 〈朝鮮古歌研究〉에서 설명한 ‘ㅎ조사를 취하는 특수 명사’에 대하여 (쑤)미, (쑤)뜰, (쑤)메, ……는 ‘ㅁ조사’냐고 반박하고 ‘ㅎ말음 명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논문을 읽고 ‘國寶 양주동이가 아무리 몰라도 ㅁ조사라고 하겠는가?’라고 하며 실소하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이에 대한 이설의 논쟁이 한때 계속되었었다. 학문에 이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학문이란 이러한 논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침체를 벗어나서 활발하게 발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후 문법에 대한 탐색은 계속되어도 끝날 줄은 모른다.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기에 힘썼지만, 다하지 못한 것은 문법이 언어의 신비성을 머금고 있기 때문인가? 그것은 확실히 언어 자체가 인간의 심리작용이고, 문법도 그런 심리에 내재하여 可視 불가능한 규칙이다. 그래서 언어나 문법은 신비의 경

지에 있다고 하겠고, 그런 마음의 내재적 실체를 밝히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케 한다. 그러면 애써 연구한 것은 그 秘境에서 노출된 부분이고, 규명할 것은 아직도 무한하다고 할 것이다.

그 신비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한 예로 우리 모음 ‘니’는 음가가 소실되면서 중모음 ‘네’로 변했다. 이것은 힘든 발음을 쉽게 바꾼 일종의 노력경제이나, 하필이면 왜 ‘네’인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나는 모음을 택해야 하겠는데, 사용 빈도로서 니(0.81%)도 낮아서 동요되었지만, ㄱ(4.36%), ㅋ(0.02%), ㆁ(0.09%) 등에서 최저치, 의미층들의 최소화를 택한 것이다. 그 얼마나 신비한가? 개인의 뇌리에서 직감한 頻度를 근거로 결정한 결과가 우연찮게도 다 똑같이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학문하는 것은 독창적 學說을 연구하는 것이요, 독창적 학설을 연구하는 것은 학술논문을 발표한다는 뜻이다. 논문은 대개 학보에 발표하지만, 때로는 단행본으로 출판해내는 경우도 있다. 단행본은 책의 내용에 따라 논문이나 논문집 혹은 著作으로 나뉘고, 또 책의 필자에 따라 자신이 집필하거나 집필한 것을 모은 著書와 여럿의 저작을 모아서 편집한 編書로 구분된다. 그런데 編著란 양자의 합동이거나 중간적이거나 있기 어렵고, 辭典이나 事典도 항목 위주로 편찬했기 때문에 편에 속한다.

## 2. 학문의 秘境 : 言語學

논문이나 논문집은 연구자의 저작으로서 확실히 학문적 연구의 단적인 表象이다. 이것은 독창적 학설을 표명한 점에서 가치가 높지 평가되지만, 축적

된 그 분야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小説 같은 형식의 저술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말하자면 논문과 저작을 걸러 새로운 제3의 체계적 저술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 논문은 각기 개별적 주제에 대한 규명인데, 이 저술은 그 시대 그 분야의 새로운 학문 전모가 체계적으로 종합된 책이라는 점에서 역시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이런 종합서의 처음 시도는 1964년 39세에 출판된 〈新國語學〉이었다. 그 원고는 다 새로 집필하지 못하고 일부 발표한 글을 재록해서 엮었다. 再錄과 관련하여, 1997년 10월 발표된 노벨물리학상의 연구 내용은 이미 10년 전 1986년에 러시아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하고, 증거로 그 저서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생각한다. 스웨덴 한림원에서 이를 일축했다지만, 이 논란은 최초로 발표한 시기가 중요하다는 대변이다. 그래서 재록할 때에 최초의 발표, 이후의 수정 등의 명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여간, 국어학은 언어로서의 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공기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듯, 인류가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는 언어의 실체는 아직도 해명을 기다리는 부분이 많다. 시도한 〈新國語學〉은 이윽고 출판되었으나, 풀었어야 할 언어학적 신비의 경지는 접근치도 못하고, 변형문법에 대해서는 촘스키(N. Chomsky)의 1957년 저서를 지적한 정도에 불과했다. 다소 진전이 있었다면 학문적 체계, 언어 단위의 설정, IC분석 등에 관하여 검토를 시도한 점이었다고 하겠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오류가 많아서 책을 대할 때마다 자책감에 항상 몸둘 바를 몰랐었다. 실은 1964년 5월에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기 시작했고, 8월에는 하버드대학 초청으로 미국에 가게 되어 있었다. 마침 출판사의 요청이 있

어 이 책의 교정원으로 제자인 대학원생을 천거하여 담당케 했다. 그런데 1964년 10월에 그 교정지가 미국으로 부쳐 왔건만, 심한 時差로 시달리느라고 보지 못하고 철저한 교정을 다시 당부해야 했다. 그저 서문을 쓰고, 없어진 참고문헌을 재작성하는 정도로 그쳤다.

그래서 미진하나 책은 1964년 12월에 나왔다. 나와서 기쁘다고 할 뿐, 책을 찬찬히 본 것은 귀국 후 역시 시차로 시달리다가 1966년 1월이었다. 인쇄상 覆字를 매우는 정도로, 교정을 옮기는 한 번도 안 본듯 오자, 탈자로 엉망이었다. 그러니 저자라고 감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이었다. 없어졌다는 참고문헌 원고도 말긴 그대로 있고, 되돌아올 책의 원고는 버리고 없어 다시 보려던 교정도 허사였다. 제자라고 부탁한 취업을 시켰는데, 그것도 책임진 그 교정을, 그럴 수가 있겠는가?

당시 미국 학계에서 직접 섭렵하는 것은 학문의 생애에서 어떤 轉機가 되리라고 예감했다. 그래서 이전의 결실을 묶어서 정리하기로 했고, 함께 〈新國語學史〉도 출판했다. 그러니 가책은 가중되었고, 끼친 누를 다소 회복하려고 애쓴 결과는 1983년 그 全訂版 출판으로써 표시되었다. 그러나 이 〈學史〉는 港都의 모 교수에 의해 거의 표절된 저서로 출판된 책이 목격되었다. 구절을 변형해 사용하는 膝甲도적도 표절이고, 출처를 인용해도 과다한 것은 역시 표절인데, 그 얼마나 미운 범죄인가?

1977~86년에 공편으로 〈歷代韓國文法大系〉 전질 102권이 완간되었다. 있는 문헌을 영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하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大系〉는 수록할 문법서를 찾고 찾다가 구미, 러, 중, 일 등지까지 가서 기어코 초판본과 수정된 재판본을 색출하여 구슬 꿰듯 집대성한 것이다. 꼬박 10년 걸린 거사

였다. 희소한 문헌은 거의 입수되지 않는데, 그 史料는 논문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후는 우선 이를 이용한 학위논문이 전보다 도처에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 3. 전승의 寶庫 : 언어 자료

언어는 양태를 통솔하는 거대한 中樞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신비하게 보인다. 그리고 곁에 나타난 개개의 樣態는 이루 세지 못할 만큼 많고 복잡하다. 이것도 역시 중추의 어떤 통솔 규칙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으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저장된 온갖 자료(corpus)는 전통적으로 계승된 遺産이다. 유산으로서도 면면히 이어 왔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傳統이다. 여러 나라에서 모두 자기 국어의 규범화에 힘쓰며 국어답게 다듬는 것은 바로 그런 전통의 발전적 수호를 굳히려는 노력이다.

국어를 수호하기 위한 그 노력은 첫째 規範化를 위한 규정의 정비, 둘째 倭色一掃 같은 국어순화의 전개, 셋째 국어의 文化性을 향상키 위한 사전, 교과서 같은 종합적 典範의 편찬이다. 1955년 4월 30세에 중고교 국어 국정 교과서의 편찬(위촉장은 1956년 9월)에 참가했고, 그 교육과정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1963년 4월 38세였다. 또한 1956년 3월에는 한글학회의 <큰사전> 편찬위원을 1년간 겸무, 국어순화에도 진력하면서, 국어심의회에 위원으로 참가한 것은 1960년 2월 35세였다.

교과서는 국어의 향상과 규범화에 지대한 영향을 전파한다. 그러나 그 위원으로 참가한 사실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고, 그 요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전하지 않는다. 또한 규범사전은 국어규범의 종합적 편람으로서 불가결하고 귀중한 法典이다. 그러나 사전편찬(lexicography)은 창작이 아니라 기성의 지식을 종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글학회 지은'이라고 한 '지은'은 '편'의 잘못이고, 역시 학회 이사장이 쓴 제6권 발문에 어째서인지 1년간의 헌신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무적 경험은 우선 연구의 대상에 대한 실질적 파악에 큰 힘이 되었다. 교과서의 편찬은 주로 무한한 언어 자료에서 오직 적합한 하나를 찾아서 아귀를 맞추는 작업인데, 그 저서는 1957년 3월 32세에 <국어국문학사>, 1960년 3월에 <새중학문법>과 <새고교문법> 등을 공저한 것을 위시한 당시 문교부 인정 교과서를 시기마다 거듭했다. 거듭하다가 단독으로 저술한 것은 1967년 2월 42세에 <새중학작문> 3권, 1979년 3월 54세에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등을 내고서 끝이 맺어졌다.

특히 국어사전은 무한량한 언어 자료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취합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전편찬은 언어의 規範에 관하여 극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典範을 만드는 작업으로 창조적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가령 어떤 어휘의 정의가 편파적이거나 어떤 규범의 처리가 독단적인 것이면 배척될 것은 당연하다. 그 내용이 새로운 보편적 지식으로 개선되는 것은 필요하나, 사전편찬의 본령은 원래 그 구조적 體制나 유기적 樣式을 창안하여 편람의 효과를 최대로 높임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共編이나마 독자적인 국어사전을 편찬한 것은 1959년 3월 34세에 출판된 <새 사전>이었다. 중고교생용으로 쉬운 어휘를 다 빼고 대신 활자를 키운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 또한 1960년 7월에 출판된 <國語핸드

복)은 국어규범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특수 사전이었다. 교정 불 때에 이 책을 참조했다는 말을 듣고 보면, 특수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름대로 본격적인 것은 1968년 4월 43세에 편찬해 낸 <종합국어사전>이었지만, 20년 만에 출판사와 함께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처럼 무한한 언어 자료를 낱낱이 거두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고, 새로운 사전을 창안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터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마치 가을에 낙엽쓸기와도 같아서 다하기 어렵고, 그 실체를 규명할 학문은 비경에 숨겨진 중추, 개개를 지배하는 統率體 그것의 장막을 벗기는 일이다. 어떻게 벗길 것인가? 수세기를 걸쳐 벗기려고 노력했으나, 그 실체는 아직도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고, 장차 후진에게 새롭고 진취적인 접근을 기대할 뿐이다.(1997. 11. 3.)

### 참 고 문 헌

- 方鍾鉉(1947. 12), 古語材料辭典 上, 서울:東豊社 油印. 下 1947. 6, 서울:東省社 油印.
- 조선어 학회(1947. 10), 조선말 큰 사전 1권, 2권 1949. 5, 서울:을유문화사.
- 한글 학회(1950. 6), 큰 사전 3권, 4권 1957. 8, 5권 1957. 6, 6권 1957. 10, 서울:을유문화사.
- 金敏洙(1952. 11), “ㅎ助詞 研究”, <國語國文學>, 1, 11~14, 16.
- 梁在淵, 金敏洙(1955. 4), 大學國語, 서울:永和出版社, 차광일, “김민수, <국어문법>(1955)”, 차광일 력대조선문법론, 1994. 1. 北京:민족출판사,



621~653.

金敏洙, 1955. 4. 國語文法論, 油印本.

이능우, 강한영, 김민수, 조연현(1957. 3), 국어국문학사, 서울 : 弘志社.

김민수(1957. 10), “〈큰 사전〉 편찬을 마치고”, 〈한글〉 122, 33, 67.

김민수, 홍용선(1959. 3), 새 사전, 서울 : 대한교과서(주).

김민수, 남광우, 유창돈, 허 응(1960. 3), 새중학문법, 새고교문법, 서울 :  
(주)동아출판사.

金敏洙(1960. 7), 國語핸드북, 서울 : 一潮閣, 개제 〈국어 표기법 사전〉, 1969.

11.

\_\_\_\_\_(1960. 11), 國語文法論 研究, 서울 : 通文館.

\_\_\_\_\_(1964. 12), 新國語學, 서울 : 一潮閣, 全訂版, 1983. 2.

\_\_\_\_\_(1964. 12), 新國語學史, 서울 : 一潮閣, 全訂版, 1980. 2.

\_\_\_\_\_(1967. 2), 새중학작문 3권 서울 : 一潮閣.

김민수, 홍용선(1968. 4) 종합국어사전, 서울 : 어문각.

김민수(1979. 3),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동 교사용 지도서, 서울 : 어문각.

\_\_\_\_\_(1986. 11) “〈文法大系〉의 緣起와 所任”, 〈歷代韓國文法大系 總索引〉,  
서울 : 塔出版社, 303~307.